



한글박물관

Hangeul Museum

당선작 _ 현대진 정회원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시인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일반미관지구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295,550㎡(전체 사업부지 면적) 3,747.25㎡(금회 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2,875.93㎡
연면적	11,522.57㎡
건폐율	76.75%
용적률	211.53%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발주처	문화체육관광부
설계담당	이창연, 음상호, 윤경현, 김수이아, 심현선, 장희진, 박창모, 이근택, 김세영, 박은미, 박종래, 양희진



배치계획

사업부지는 서울의 중심, 용산에 위치하며 경복궁, 송례문, 서울역을 잇는 문화·역사축 위에 있고, 주변으로 중앙 박물관과 문화공간이 있는 문화·역사적 상징공간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축과 서빙고로의 축을 받아들여 배치를 계획하고 대상지 주변에 위치한 거울못, 문화재, 소나무길, 돌다리 등의 요소들과의 연계를 고려하였다. 또한 서빙고로와 중앙박물관에서의 인지도성 및 접근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려 하였다. 그리고 기존 열주회랑의 보존과 계류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배치하고 지형의 높낮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건물과 외부공간을 구분하여 산책로와 연계할 수 있는 순환동선을 계획하였다.

공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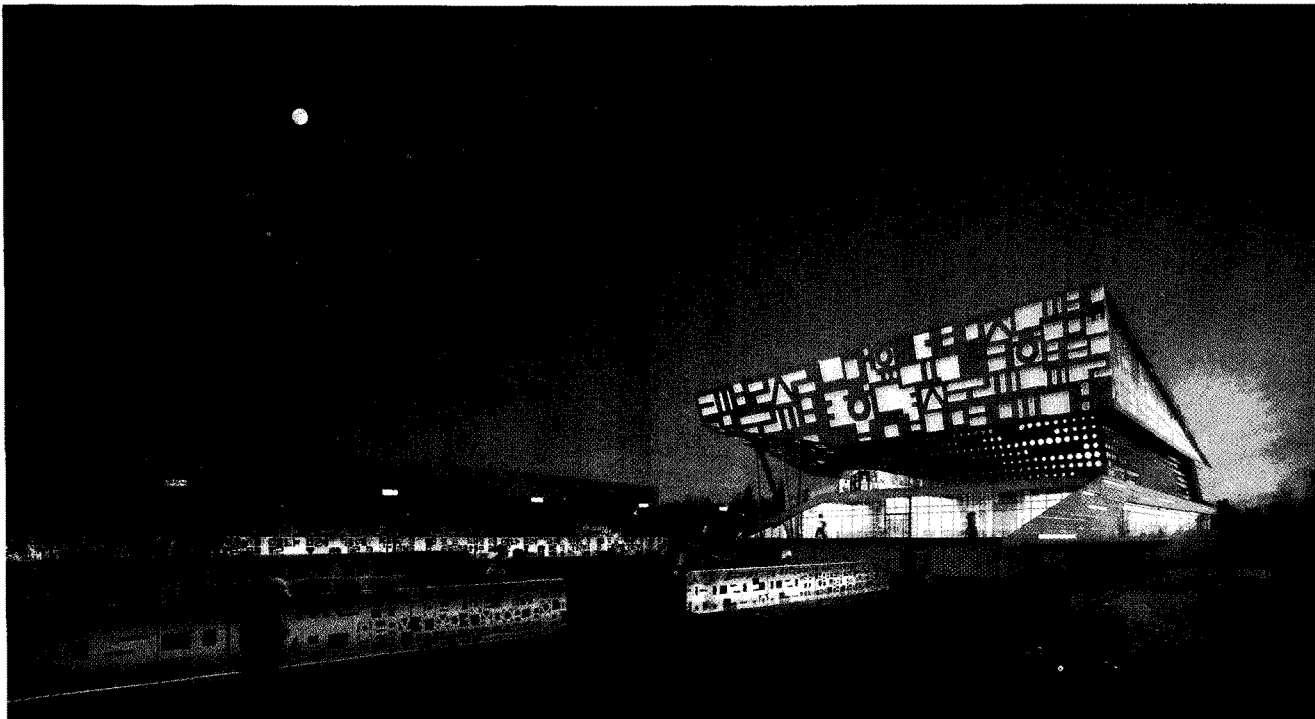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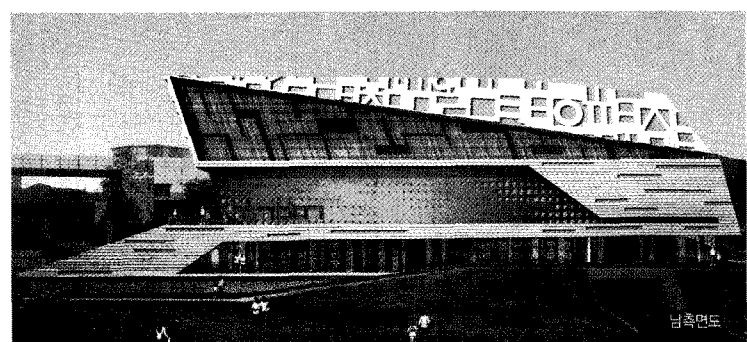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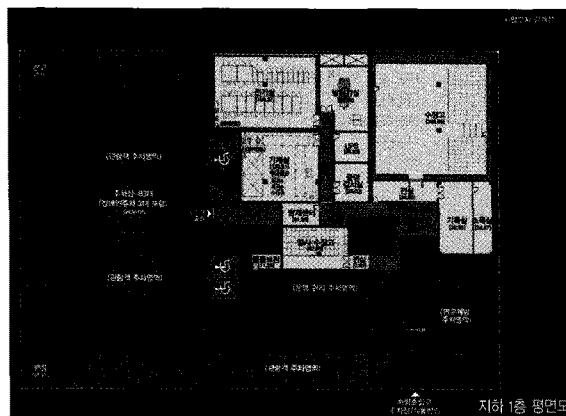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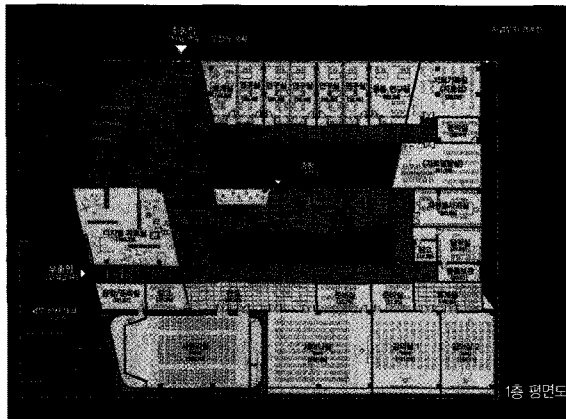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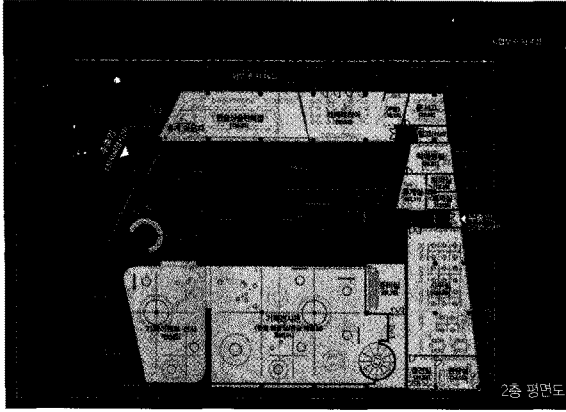
첫째, 제안된 프로그램 면적범위 안에서 설정된 매스에 중정을 삽입함으로써 하늘과 소통하며 외부접지면적을 확장시켰으며 둘째, 문화·역사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진입축을 진입계단과 데크로 연결하여 땅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입체적 공간으로 발전시켰다. 마지막으로 진입부 지붕처마의 솟아오른 곡선 설정으로 정면성 강조와 도시와 자연, 사람을 향해 열린 소통의 공간을 계획하였다. 또한 내부프로그램 구성은 사람들이 모이고 헤어지는 중정과 코어를 중심으로 연계배치 하였고, 상층부터 전시체험시설, 고객지원시설, 교육교류시설과 연구개발시설을 순차적으로 구성하였고 운영관리시설은 성격별로 각층에 분리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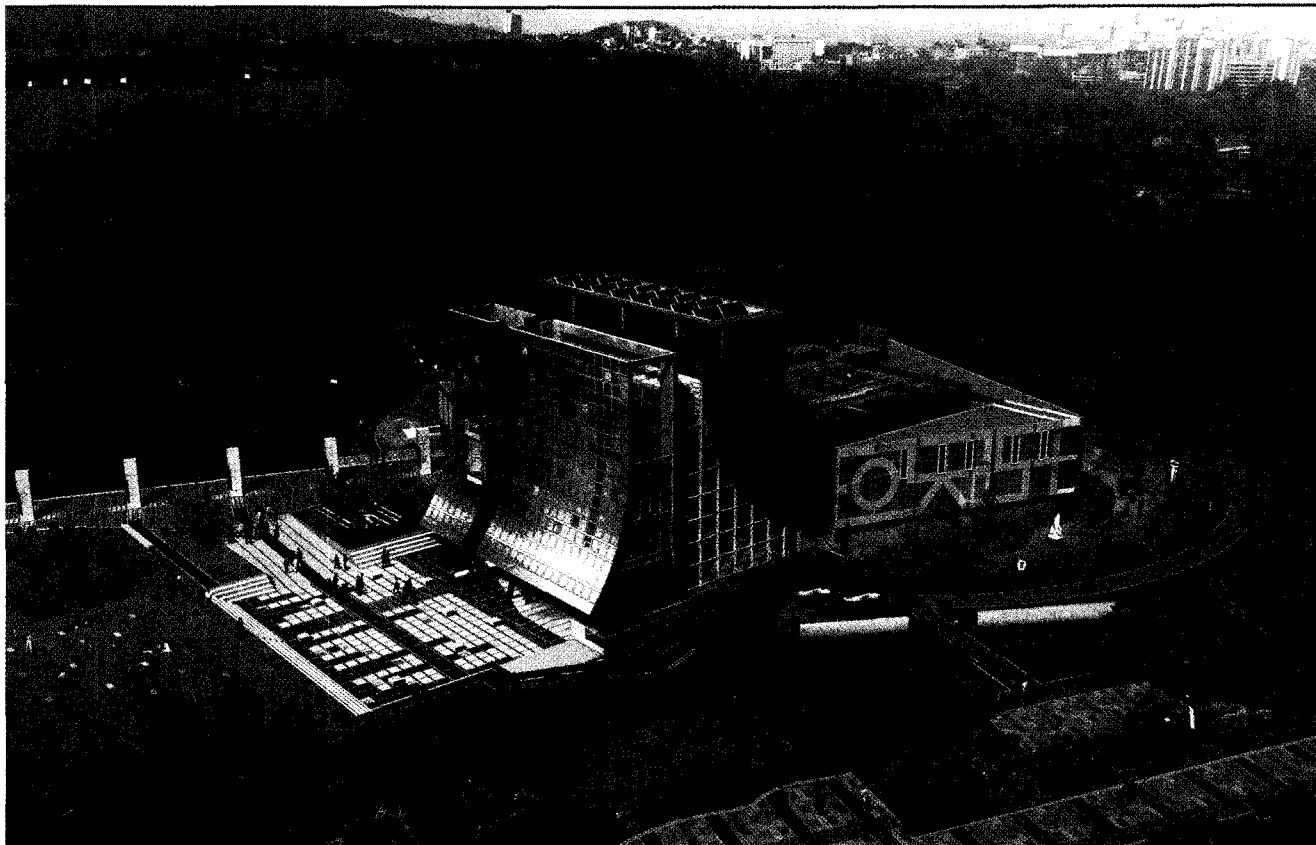
평면계획

교육과 연구를 위한 공간인 1층은 로비를 중심으로 교육부분과 연구부분을 구분하였다. 세미나실과 시청각실은 별도의 출입구를 두어 전시와 분리 운영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교육장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연구실은 체크포인트를 두어 보안을 확보하고 자료기록실과 연계하여 배치하였다. 2층에는 기획전시관, 관람객편의시설, 사무시설을 계획하였다. 가변형 기획전시관은 접근이 용이하도록 로비와 인접배치하고 또한 사무공간은 독립적 영역의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였다. 전시체험시설이 있는 3층은 전시관 도입부에 상징전시홀이 위치하고 상설전시관은 자유로운 전시계획과 선택동선계획이 가능한 대공간의 오픈플랜으로 계획되었다.

외부공간계획

중앙박물관의 자연을 보존함과 동시에 공원과 연계 고려한 외부공간계획은 한글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자연형 랜드마크를 목표로 2층 외부 전시데크와 옥상의 천지인 마루를 계획하였다.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가능한 제안시설, 천지인 마루는 3층에서 접근가능하며 관람자의 휴게와 남산의 조망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한글박물관의 전면부에 한글박석마당에는 LED와 한글조형물을 이용한 체험광장을 조성하고 기존계류를 활용한 수변생태체험공간을 제안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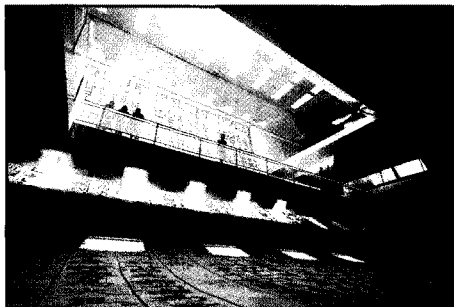


한글박물관

Hangeul Museum

우수작 _ 송유석 ^{정회원} (주)한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김종범 (주)주우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용산 6가 168-6)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미관지구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295,550.69㎡
건축면적	2,896.50㎡
연면적	11,515.14㎡
건폐율	17.68%
용적률	42.31%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발주처	조달청
설계담당	한기건축_이태주, 김현복, 박종훈, 허은정 주우건축_조한준, 이현중, 권태구



‘글을, 한글을 담다’는

우리가 보존해야 하고 발전시켜야 할 한글, 그 한글을 담고자 하였다. 이를 담고자 과거를 기억하는 수단인 한글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미래라는 그릇에 담아 한글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박물관을 계획하였다. 한글박물관은 과거속의 한글의 의미를 오늘날 되새기고 동시에 한글의 의미와 역할을 세계에 알리는 장이 될 것이다.

배치개념

대지 내 강한 축을 형성하는 중앙박물관의 축과 계획대지 남측에 위치한 서빙고로의 도시 축을 수용해 진입 시 정면성과 상징성이 강조되도록 계획한다.

전면광장 : 한글 서체의 유려한 흐름을 은유하여 광장에서부터 하늘로 치솟아 한글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공간으로 구성

외부동선계획 : 보행자 접근은 전면광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차량은 계류하부로 접근이 가능토록 해 자연훼손을 최소화

평면계획

지하 1층

- 주차장을 설치해 자상부의 토지이용효율을 최대화
- 하역장을 수장고와 근접 배치해 화물 반·출입 등의 유지관리가 편리

지상 1층

- 중앙 홀을 중심으로 기획전시실 및 체험실과 정보열람실을 배치해 이용객의 접근에 편의성을 고려
- 홀 중앙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관람객에게 전시관 진입동선을 명확하게 제시
- 중앙 홀은 천창을 통해 외부의 빛을 끌어들이어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벽면에 극적인 전시효과를 연출
- 전면광장에 면한 카페테리아를 통해 외부공간과 연계된 휴게공간을 계획

지상 2층

- 중앙의 전시공간을 중심으로 좌측에 시청각실 등의 교육시설, 우측에 연구시설을 구분해 배치
- 전시공간 외주부의 복도를 통해 각 시설간의 연계성을 강화
- 1층과 연계된 중앙 홀은 빛을 이용해 감성의 전시공간으로 계획

지상 3층

- 중앙 홀 상부에 의해 분리된 3층의 전시공간은 전시테마에 맞게 공간을 구성
- 중앙 홀 좌측으로 교육시설, 우측으로 운영사무실 등의 관리시설을 배치

